

배포일시	2011.06.03.(월) 11:00 (총 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담당자	대장 박남철
		전화번호	032-761-9969

〈 서울·인천·경기 1개월 전망 (2011년 6월 11일 ~ 7월 10일) 〉

— 6월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겠음 —

- 6월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겠고 하순에는 발달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7월 상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겠으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음

【 1개월(6월 중순 ~ 7월 상순) 전망 요약 】

전국	평균기온	강수량
6월 중순	평년(19~23℃)보다 낮겠음	평년(33~79mm)보다 많겠음
6월 하순	평년(20~24℃)보다 낮겠음	평년(45~149mm)보다 많겠음
7월 상순	평년(22~25℃)보다 높겠음	평년(61~153mm)과 비슷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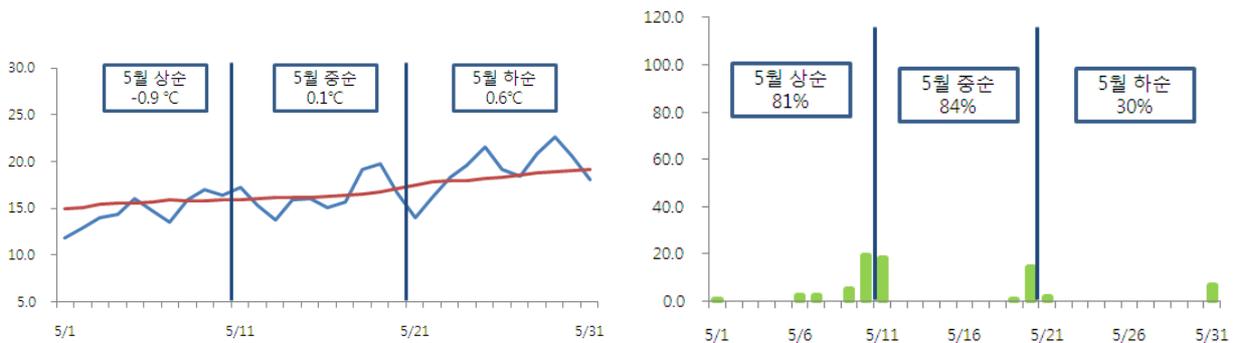
서울인천경기	평균기온	강수량
6월 중순	평년(20~22℃)과 비슷하겠음	평년(36~47mm)과 비슷하겠음
6월 하순	평년(22~23℃)과 비슷하겠음	평년(45~61mm)과 비슷하겠음
7월 상순	평년(23~24℃)과 비슷하겠음	평년(84~101mm)보다 많겠음

1. 날씨 전망

- (라니냐 상태) 점차 회복되어 여름철에 평년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편차 : 최근(5월 네째 주) -0.2℃
- (6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6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된 기압골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오겠으며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하겠음.
- (7월 상순) 기압골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고온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음.

2. 최근 날씨 동향

- (5월 상순)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았으며 기온보다 낮았음. 두 차례(6~7일, 9~10일)의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낮았음.
- (5월 중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두 차례(11~12일, 19~20일)의 기압골 영향으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음.
- (5월 하순) 동서고기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아 서울·경기도를 비롯한 서쪽지방은 편 현상이 나타났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자주 있었으며 21일과 31일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황사) 1일~4일, 12~13일에는 전국적으로, 14일에는 서울·경기·강원 일부지역에 황사가 나타났음.



최근 봄철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1.05.01 ~ 2011.05.31)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6월 11일~7월 10일)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사례(6월 11일~7월 10일)

【 알림 】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1년 6월 13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02-2181-0887)로 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 기압계

- 6월 중순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저압부가, 남동쪽에 고압부가 형성되어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를 형성함. 6월 하순 이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그 전면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진동하며 영향을 줌.
-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북서쪽으로 확장하며 그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많은 비가 내림. 특히 북태평양고기압과 중국 대륙의 저압부,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경계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장기간 정체하면서, 이 전선 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며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오래 지속됨. 북태평양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남.

○ 바람

-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우세하지만, 강릉과 춘천에 북서풍, 포항과 부산에 북동풍, 충청도와 전라도에 남동풍 등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국지풍이 나타남.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등

- (평균기온) 22.5℃ (6월 중순 21.6℃, 6월 하순 22.6℃, 7월 상순 23.5)
- (평균 강수량) 253.1mm (6월 중순 57.3mm, 6월 하순 74.3mm, 7월 상순 121.5mm)
- (습도) 6월 중순 69.7%, 6월 하순 75.8%, 7월 상순 80.0%로 점차 증가함.
- (강수일수 및 일조시간) 강수일수는 6월 중순 3.3일, 6월 하순 4.6일, 7월 상순 5.6일로 증가하며, 일조시간은 6월 중순 6.5시간, 6월 하순 4.8시간, 7월 상순 4.0시간으로 감소함.

[첨부 2]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사례 (6월 11일 ~ 7월 10일)

○ 고온현상

- (2010년 6월 중순~7월 상순) 동서고압대의 기압배치와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지속되어 총 30일 중 25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음. 전국 평균최고기온 28.2℃(평년편차 +1.2℃)로 해당기간의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
- (2005년 6월 하순) 이동성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고온이 지속되었음. 특히 6월 25일은 전국 평균기온 32.5℃(평년편차 +6.2℃)로 6월 기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극값(포항 37.7℃, 영덕 36.9℃, 영천 36.4℃)을 경신하였음.

○ 저온현상

- (2003년 6월 중순~7월 상순) 강하게 발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평년보다 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잦았고,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8월 중순까지 이어졌음. 이 기간의 평균 최고기온은 25.1℃(평년편차 -1.9℃), 강수량은 385.2mm(평년대비 172%)로 기온은 가장 낮고, 강수량은 가장 많은 해였음.

○ 집중 호우

- (2009년 7월 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강수량 2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음. 특히 부산에서는 일강수량 310mm을 기록하였으며, 부산 대연동은 368.5mm 기록함. 부산 아침 출근시간에 1시간 강수량 73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함.
- (2004년 6월 19~20일)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과 태풍 '덴무'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제천 268.5mm, 문경 242.0mm, 동해 236.0mm 등)가 내렸음. 4명의 사망과 225명의 이재민, 2천 억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1년 6월 24일) 장마전선과 태풍 '제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최고 303mm(남해)의 많은 비가 내렸음.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 1만여 ha 침수, 항공기 백여 편이 운항이 취소됨.